

유정복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으로 생산 6.5% 취업 5.4만명 유발 기대”

(인천광역시)

국토부에 관련 제안서 제출 계획
선도사업 선정 시 2037년 개통 목표
경기도 공동 추진... 인천시 구간 14km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 국토교통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과 관련해 최우선 과제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23일 인천시는 ‘경인전철 지하화 선도사업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정복 시장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으로 6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5만 4000 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인선 철도가 인천역부터 구로역까지 이어지는 만큼 인천·서울·경기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지상 철도 중 철도 지하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선도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이에 맞춰 경인전철 지하화 방안을 구체화해 이번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2025년부터 기본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화할 사업과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인전철 지하화 선도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김대의 기자

선정되면 2028년 설계에 들어가 203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서에는 경인전철(운수역~인천역, 22.63km) 구간의 지하화 방안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된다.

이중 인천시 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4km 구간이다. 총사업비는 약 6조 6천억원으로, 이 중 철도 지하화에 약 3조 4천억원, 상부 부지 개발에 약 3조 2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11월 중 국토부와 연구진을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및 상부 부지 개발 사업구상’에 대한 발표와 평가가 진행되고, 올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사

업 선정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철도지하화특별법과 3월 인천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경인전철 지하화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인천시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1거점(제물포 르네상스)+2축(인천대로 일반화, 경인전철 지하화)’의 마지막 퍼즐로 구상하고 있다. 또 지상 공간 중 일부를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시설 및 공원, 상업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경북도, 이산화탄소 모아 청정연료 만든다

포스코홀딩스(주) 등 12개 기관 참여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청정연료 등 유용한 물질로 만드는 사업이 경북에서 추진된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에서 경북도와 포스코홀딩스(주)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은 산업공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메탄올, 올레핀 등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CCU 기술을 탄소 중립 실현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50 글

로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CCU 기술 기여도를 총감축량의 15%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경북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을 위한 대형 연구개발 실증사업을 위한 절차로, 전국에서 27개 컨소시엄이 참여한 가운데 경북 포항을 비롯 전남 여수, 충남 서산, 강원 강릉·삼척, 충남 보령 등 최종 5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인데, 포항은 2030년까지 261억원을 투입해 포스코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제철소 내 폐열을 활용해 저탄소 메탄올(신박용 친환경 연료)과 합성가스, 에틸렌카보네이트(2차전지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중앙대학교가 23일 '청년창업 활성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서울 서남권 지·산·학 업무협약'을 서울캠퍼스 310관(100주년 기념관)에서 체결했다. /중앙대

중앙대, 14개 기관과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서울 서남권 6개 대학 등 참여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청년창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 서남권 지·산·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대는 23일 '청년창업 활성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서울 서남권 지·산·학 업무협약'을 서울캠퍼스 310관(100주년 기념관)에서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중앙대와 강서대·동양미래대·서울대·숭실대·총신대 등 6개 대학과 강서구청·관악구청·구로구청·금천구청·동작구청 등 5개 자치구, 서울경제진흥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개 지원기관까지 총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서남권 14개 기관은 각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토대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기관별 창업지원 역할을 재정비하고, 창업기업 성장 단계에 최적화된 창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서남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이다.

14개 기관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서남권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앙대를 비롯한 대학들은 예비·초기 단계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자치구들은 창업기업의 지역 정주를 위한 여건 조성 성과 성장을 돕기 위한 행·재정 지원에 나선다.

지원기관들은 도약단계의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

‘광운대역 물류부지’로 강북 전성시대 모색

서울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첫삽’
자족 기능 확보 등 주요점 두고 개발
뚝,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신설

지난 40여년간 강북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꼽혀온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이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7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착공식(노원구 월계동)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광운대역 물류부지에는 오는 2028년까지 상업·업무시설을 비롯해 아파트, 공공기숙사, 생활SOC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지역적 특성과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자족 기능 확보 ▲기반 시설 확충 ▲열린 공간 조성에 주요점을 두고 개발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상 단계부터 이번 사업이 일지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 유치의 마중물이 돼 지역이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게끔 유도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 서울시, 노원구와 협약한 개발 사업 시행자 ‘HDC현대산업개발’의 본사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광운대역 물류부지 내 공사에 들어가는 사업은 복합용지 주택건설로, 향후 상업업무용지·공공용지 등도 순차적으로 착공해 2028년 하반기까지 전체 시설 공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신설하고, 강북권 신(新) 경제 거점 개발에 박차를 가해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고

고 선언할 예정이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기존의 사전협상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시는 강북 권역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유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사전협상’은 공공이 민간사업자와 협력해 대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 기여로 확보하는 제도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도 받는다. 협상 기간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6개월 내→3개월 내)으로 단축돼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hjk1@

충주시,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중기부와 실증사업 준공식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충북 충주시 메가폴리스 산단에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충북 그린수소

산업 특구는 지난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등을 실증하고 있다.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은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에 1587.64㎡ 규모로 건립됐다. 정부지원 외에도 지방비와 민자금 등 총 248억원

이 투입됐다.

실증사업장은 지난해 11월 착공 후 1년여만에 완성됐다. ‘수소법’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모듈형 상용급(500kg-H2/day급 이상)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정제 시스템 실증설비를 구축했다.

수소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암모니아는 수소 함량이 17.6wt%로 매우 높고, 상온 기준 약 8바(bar)에서 쉽게 액화할 수 있어 대용량의 수소 운송 및 저장이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bada@

한신대-안랩, 인재양성·산학교류 ‘맞손’

지역 청년 취업·상호발전 도모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김용희)는 안랩(대표이사 강석균)과 지난 21일 경기캠퍼스 장공관 3층 1318 회의실에서 인재양성 및 산학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진행한 이날 협약식은 참석자 소개, 한신대 강성영 총장의 환영사, 강석균 안랩 대표이사 인사말, 한신대 및 안랩 소개 영상 시청, 협약서 체결, 기념 촬영,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취업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대학발전, 특성화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대학 주관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인재육성과 연구, 교육 등을 위한 상호협력 사항 등 지역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강성영 한신대 총장은 “한신대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되어 인간 존중, 약자와의 동행을 표방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IT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한신대가 가진 자원과 장점들을 통해 안랩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